

수익성 악화 불가피... 車·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산업계

일부 업종, 단기 영업익 증가 기대 장기적으로 원자재 등 부담 심화 "교역 여건, 전반으로 악화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탄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을 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산업은 수출 확대와 일시적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해외 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148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수준이다. 만약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산업이 받을 충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외가 올해 초 주요 업종별 협회 12곳과 함께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바이오·반도체·배터리·철강·석유화학·정유·디스플레이·섬유패션·식품 등 산업 대부분이 '흐림'으로 나타났다. 반

면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은 '대체로 맑음'이었지만 원자재 수입 등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전기차 캐즘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생존경쟁에 나선 배터리 산업은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수출한 배터리에 대한 환차익 이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원가 부담을 배터리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화 부채 부담과 생산원가 및 투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에서 고환율에 따른 제조 원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격이 민감한 철강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철강

산업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완성한 뒤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예상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입 비용이 상승한다"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줄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생산 단가 상승은 결국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현재 교역 여건이 전반적으로 너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제조원가 및 해외 투자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당장은 더 좋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웨이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액이 증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디

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국내 생산의 67%를 수출하는 자동차산업은 환율 상승으로 단기적 영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국내 완성차 업계 매출은 4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다만 미국이 지난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는 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보다 원자재와 부품 원가 상승,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수입과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현재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양성운·차현정·이혜민 기자 ysw@metroseoul.co.kr

식품 등 원가 부담 눈덩이... 가격인상 압력 커져

유통업계

환율 오르면서 원재료 비용 상승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환율 널뛰기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상승 마감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최고치를 갱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 분쟁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특히,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이 곧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초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료 수입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되는데, 재료 수입할 때, 배 한 척에 90억원 수준이다. 환율이 지금처럼 오르면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상, 오뚜기,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기업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라면, 맥주, 햄버거 등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초콜릿(15.5%), 김치

(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에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재료 비용이 치솟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곧바로 올리기엔 거라쳐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일부 가격을 올리는 곳도 있겠지만, 원가 부담이 커도 판매가를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도 빨간불이 켜졌다. 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의 명품·화장품·패션 브랜드는 해외 수입 제품으로, 제품은 달러(USD) 기준으로 책정된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외국인 방문객 입장에서는 한국 면세점에서 쇼핑할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패션업계에서는 한세실업 등이 환율 리스크 영향과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실업은 지난 1982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류 수출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9월 미국 대표 섬유 제조업체 '텍솔리니'를 인수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라며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그거대로 큰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덮치니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400원 후반대 고환율... 외인, '셀코리아' 움직임

자본시장

올 들어 주식·선물시장 23조 순매도 환차손 부담, 관세전쟁 여파 등 영향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이 '셀코리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원화 약세 국면에선 가만히 앉아서 달러로 환산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환차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를 챙겨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팔자'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코스피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데드 캣 바운스'(죽은 고양이 반등·Dead cat bounce)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23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이날 코스피는 1.74% 하락한 2293.70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2.29% 하락한 643.39에 거래를 마쳤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부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로 표시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찾아 나가면 원화 약

세는 더 심화되고 환율은 높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행렬이 더 길어지게 되고, 환율은 다시 더 뛰게 된다. 지금 국내 증시와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이다.

과거에도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의 코스피 하락 확률은 60%였다. 4% 이상이면 이 확률이 80%로 뛰었고, 5% 넘을 경우에는 100%였다.

국내에 투자된 미국자금의 절반 이상은 환율 민감형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특징·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미국 뮤추얼펀드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의 절반 이상이 패시브 자금이다. 한은은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민감한 패시브 주식 투자 자금은 환 헤지(위험 분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율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원인은 환율 외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둔화나 침체에 빠지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화는 달러와 무관하게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점이 내년 4월로 미뤄질 것이라 소식도 악재다. 한국은 올해 11월 WGBI에 편입되면 90조원 수준의 원화 채권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